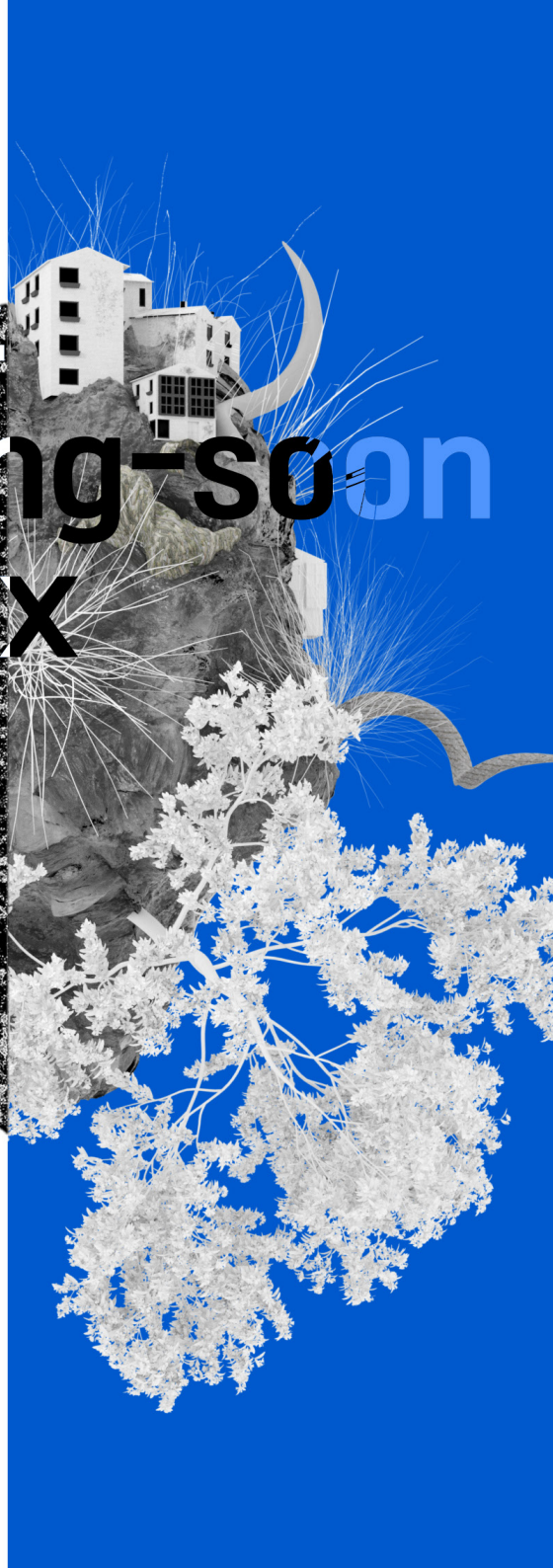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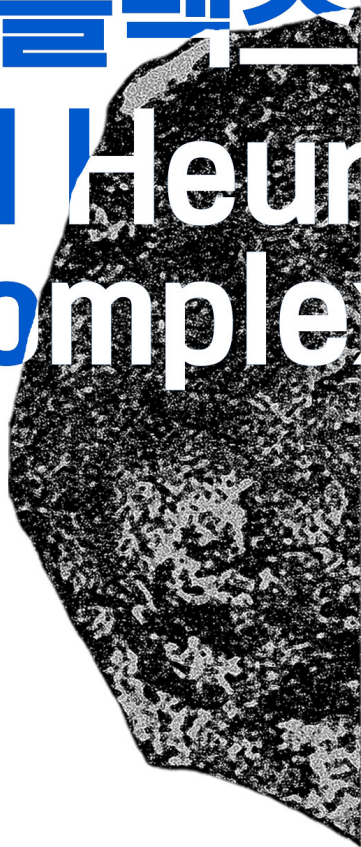


임흥순
콤플렉스

IM Heung-soon
Complex



이 프로젝트는 영상 설치 미술가이자 영화감독으로서 임흥순이 이룩해 온 세계, 즉 ‘스크린이라는 시공간’에 중점을 두고 임흥순 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제 중심의 분석에 편중되었던 기존 비평의 경향을 확장하여 임흥순의 작품에서 서사와 이미지 연결의 고유성 및 창조성을 구명할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의 결과물로서 이 책의 구체적 목표는 임흥순의 작품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따라서 무엇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품의 창작 원천으로서 임흥순 세계의 본질을 제시함으로써 그 진입로를 밝혀두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임흥순이라는 복합 다면체 내부의 길을 찾고, 트고, 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서 이미지 중심의 서사를 탐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 구조물 곳곳을 무한히 연결해 나가는 신경망을 그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여기 담긴 글과 자료를 통해 이 연구가 조명하는 임흥순의 세계는 우선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임흥순 콤플렉스』는 임흥순의 대표 작품 일곱 점에 대한 연구분석, 임흥순의 세계와 그의 작품에 관한 네 편의 비평글, 그리고 아카이브로 구성된다. 우선, 대표 작품 연구분석인 <하이라이트 7선>은 활동 시기와 주제에 따른 주요 작품 해제를 통해 임흥순의 작품 세계를 두루 개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책에 수록된 연보의 시기 구분에 의거, 임흥순이 본격적으로 영상 설치 작업을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강약을 두어 총 일곱 점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전·후반에 <내 사랑 지하>(2000)와 <꿈 I II>(2008/2009)를, 2010년대 전·후반에 <송시>(2011)와 <교향일기>(2015-2018)를 배치하였고, 2020년 이후의 최근작으로는 <좋은 빛, 좋은 공기>(2018/2020), <포옹>(2021), <파도>(2022)를 선정하였다. 각 해제에 이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주요 시퀀스 스틸과 작가노트, 프로덕션 크레딧으로 구성된 아카이브를 함께 제공하였다. 일곱 편의 해제는 이 책에 담긴 비평문과 공명하면서도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독립된 개체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한 편의 조밀한 분석적 시론의 형식을 띤다.

다음으로, 임흥순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분석한 네 편의 비평문을 통해 본 연구의 성과를 핵심적으로 개괄한다. 남수영과 곽영빈은 기존에 임흥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경험을 토대로 확장된 작가론을 펼친다. 현지연과 아디나 메이는 미학적, 정치적 에세이 형식의 작품론을 선보인다. 네 편의 글이 상호 교차하며 직조해 내는 사유의 불꽃들이 임흥순 콤플렉스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1998-2023>에는 연보, 작품 및 출판물 목록, 작가 이력 등을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향후 본격적인 ‘임흥순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연도를 붙여 한정한다. 연보는 26년에 걸친 임흥순의 궤적을 연도별 사건, 활동, 주요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당 기간을 총 여섯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서술하였다. 작품 및 출판물에 관련해서는 199점에 달하는 전체 작품을 목록화하고, 그와 별도로 작가의 저술이나 창작물에 해당하는 16건의 출판물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가 이력과 함께 학술논문, 비평, 주요 인터뷰 등 참고문헌 목록을 수록하였다.



내 사랑 지하(2000)
 단채널 6mm 비디오, 컬러, 사운드, 17분 16초



꿈 I II (2008/2009)
 사진을 활용한 단채널 영상, 컬러, 무음, 14분 26초



승시(2011)
 단채널 F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4분 26초



교환일기(2015-2018)
 단채널 FHD 비디오(스마트폰), 컬러, 사운드, 64분
 임홍순×모모세 아아



좋은 빛, 좋은 공기(2020)
 단채널 2K 비디오, 컬러/흑백, 5.1채널 사운드, 110분



포옹(2021)
 단채널 FHD 비디오, 컬러, 5.1채널 사운드, 75분 19초



파도(2022)
 3채널 FHD 비디오, 흑백/컬러, 5.1채널 사운드, 48분 40초
 이미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임흥순(1969년 서울 출생)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활동하는 영상설치 미술가이자 영화감독이다. 현대 예술로서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공공미술, 개별 작업과 공동 작업, 전시장과 극장 그리고 생활현장을 오가며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기획, 제작해 왔다. 1998년부터 작가로 활동을 시작해 총 16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표 개인전으로 2015년 미국 뉴욕 MoMA PS1에서 열린 《환생》,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작가로 선정되어 개최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2019년 더페이퍼갤러리에서 열린 《고스트 가이드》, 2022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2022 타이틀 매치: 임흥순 vs. 오메르 파스트 《컷!》, 2023년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억 사위 바다》가 있다. 2002년과 2010년 광주비엔날레, 2015년 샤르자비엔날레와 베니스비엔날레, 2016년 타이베이비엔날레, 2018년 카네기인터내셔널 등 다수의 국제 미술행사와 영화제에 초대되었다.

첫 장편영화 <비념>(2012)을 시작으로 총 여덟 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했고 다섯 편의 영화를 극장 개봉했다. <위로공간>(2014)으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러행>(2016)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아판타스틱 관객상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노르웨이 스타방에르미술관,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 등의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작가: 임흥순

총괄기획: 이현인

책임연구: 송가현

연구·비평: 곽영빈, 남수영, 송가현, 아디나 메이, 현지연

아카이브 조사·분석·정리: 우지현

편집: 권정현

번역: 고아침

디자인: 다운라이트 앤 오시선

출판: 다운라이트 아트북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

